

보도시점 : 2025. 4. 10.(목) 11:00 이후(4. 11.(금) 조간) / 배포 : 2025. 4. 10.(목)

광주·전남 지역 성장 이끌 ‘맞춤형 교통계획(’26~’30)’ 수립 본격화

- 11일 간담회에서 광역철도·광역도로 등 5건의 신규사업 논의
- 대구권, 대전권, 수도권 등 다른 권역 간담회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“대광위”)는 4월 11일(금)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‘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(’26~’30)’ 수립을 위한 광주·전남권 간담회를 개최하고,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.
-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개최된 부울경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,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지역 현안과 성장거점을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.
-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,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,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한국교통연구원, 광주연구원,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.

【 광역교통시행계획 】

- (개요) 「광역교통법」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
- (공간적 범위) 5개 대도시권(수도권,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, 대전권)
* 「광역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
- (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) 광역철도 47개, 광역도로 25개, 광역BRT 12개, 환승센터 44개 등 총 146개 사업 반영, 총 투자규모(국비) 28조원(5개년 국비 기준 7.1조원)

-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~나주 광역철도*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, 5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.

* (총사업비) 1조 5,192억원 / (진행 단계)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중

-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주·전남권 신규 건의사업 5건 및 기존에 반영된 사업 변경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, 사업별 경제성 분석(B/C), 자체 신규 사업 발굴, 지자체 협의,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.

-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“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,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프라”라며,

- “광주·전남지역에는 광주·전남 공동 혁신도시(빛가람 혁신도시)를 비롯해 최근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('25.2)되어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있는데, 이러한 지역의 성장거점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”고 밝힐 예정이다.

- 한편, 대광위는 4월 말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대전권, 수도권 등 다른 권역들도 상반기 내 간담회를 완료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혜진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 오지연 (044-201-5056) 주무관 한태희 (044-201-5053)
담당 부서	광주광역시 광역교통과	책임자	과 장 김종호 (062-613-1750)
		담당자	사무관 민순영 (062-613-4580) 주무관 범은경 (062-613-4581)
담당 부서	전라남도 교통행정과	책임자	과 장 서영배 (061-286-7450)
		담당자	사무관 장호훈 (061-286-7480) 주무관 곽재령 (061-286-7481)
담당 부서	한국교통연구원 광역·도시교통연구본부	책임자	본부장 박준식 (044-211-3048)
		담당자	부연구위원 윤상원 (044-211-3186) 주임연구원 정동우 (044-211-3215)